

공동체 소식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매일 자비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 미국내 복음화를 위한 2차헌금
- 오후 1시까지만 성당/식당 사용합니다. 오후2시부터 HT 자비주일 행사가 스톤채플에서 있습니다.

과테말라 현지인 선교 본당 후원 고맙습니다.

- 문석찬 요셉(\$500), 김화년 요안나(\$200), 박태주 로마노(\$200), 고영방 스테파노(\$300)
- 본당에서 후원해 주신 정성 그대로 현지인 선교 하시는 과테말라 신부님께 후원했습니다. 그외 천사의 집과 교포사목 신부님께서는 본당신부가 개별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평협회 안내

2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성모의 밤 안내

- 일시 : 5월 4일(토) 저녁 7시 30분
- 성모님께 드리는 시, 편지글이나 노래 또는 연주로 봉헌해 주실분은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꽃바구니 봉헌 받습니다.
- 개인 봉헌 장미꽃과 개인 봉헌초는 전례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5월 신심미사는 '성모의 밤(5/4)미사로 대신 합니다.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주일 미사 준비에 함께 합니다.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이번주 마감

-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5시
-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 대표지도사제 : 고봉호 베드로 신부님
- 회비 : \$350
-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25가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134	210	499	131
차 주	130	512	175	132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김병철(베네딕토)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하나) 김지안(요한)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도)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차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서는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월 성당 및 지하 청소: 1구역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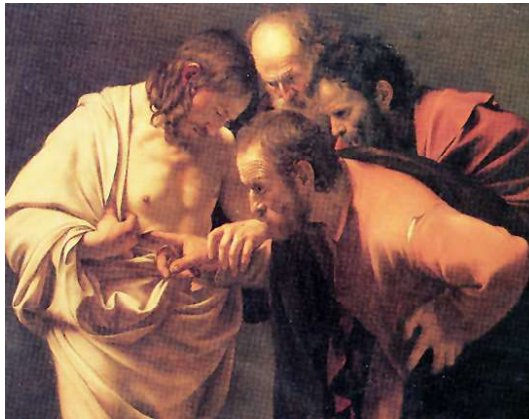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 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림 묵상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7-29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12-16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9-11 나. 12-13. 17-19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생명의 말씀

부활 증언하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분의 명령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에서까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믿는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째 독서는 그 후의 (사도들에 의한) 표징과 이적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앞선 베드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믿기 어려운!) 증언이 그 표징과 이적을 통해 믿을 만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복음이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에 대해 가르쳤지만, 토마스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감동적 탄성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이제부터 예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선언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은 예수 부활을 통해 선포된 새 생명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에서 묵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신도 역시 (묵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분명히 합니다. 묵시록이 전하는 증언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것은 부활 사건이 완성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의 종말이란 부활을 통해 선포된 새 생명이 실현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전승되어 온 부활에 대한 증언은 교회 전례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전례에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새 생명과 새로운 세상의 꿈을 간직해온 교회가 그 모든 희망의 출발점인 부활을 기억하는 방법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화려한 불꽃 놀이가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며, 우렁찬 함성이 아니라 나지막한 부활 찬송과 함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들어온 부활에 대한 증언을 이어갑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나지막하지만 희망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은 올해도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승정 베네딕도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있잖아. 너 기억하니?
우리 초등학교 때 급훈

기억나지.
"1분만 가만히 앉아있자!"

정말 많이 떠들고 장난 많이 쳤지.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급훈을 정하셨는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그런데 제일 필요한 거.
그걸 적어 놓으셨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하루하루

이제는 삶의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한 시간들을 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최근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명 하에 일부 장기는 기능을 멈춰갔고, 극히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안에 나에게 꼭 맞는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다면 삶을 마감하게 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극적인 이식의 기회를 얻었고 다시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까지고 삶의 시간들이 계속 당연하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서야, '아, 삶의 시간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었구나. 매 순간이 새롭게 부여받은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의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높이, 더 유명해지기 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었다면, 계속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들로 제 삶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곧 삶을 마감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보니,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할지 무엇으로 감사한 시간들을 채워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사는 동안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지만, 적어도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금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쓸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시간을 채워야 의미가 있을까. 아직 답을 찾는 중이지만, 사랑을 베풀어 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며 나 또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로 삶을 채워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을 기증해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제게 크나큰 행복이자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제 인생 또한 이렇게 쓰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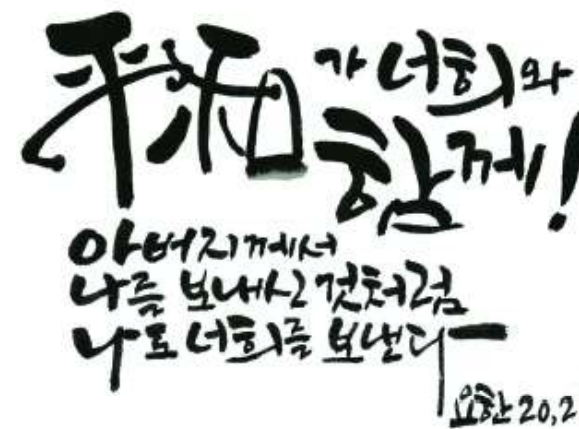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행복한 추억들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이나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감사한 삶에 대한 마땅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시간들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수진 아가다 | KBS 기상캐스터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손창배 바오로